

現實照應과 作家意識의 反應

— 廉想涉의 리얼리즘 —

李 康 彥

<1>

作家에게서 現實의 문제는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當代의 現實을 作家로서 어떻게 濃過하고 나서 作品세계로 投影시키느냐에 따라 리얼리즘 文學은 評價되기 때문이다. 주어진 現實狀況을 통해서 가장 절실한 人生의 문제를 채굴한다는 것. 그것은 리얼리스트로서 가장 큰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진정한 意味의 리얼리즘이 歷史的 認識에 입각한 現實의 幅넉은 客觀的 파악이며, 그것은 實生活의 諸事件 人間의 상호관계 및 성격의 혼돈 속에서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것, 가장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生活의 정경, 그리고 社會的 理念에 불타는 人間의 典型을 創造하는 예술적 描寫¹⁾를 가리킬 때 더욱 그렇다. 이러한 現實의 事象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現實反映의 文學으로 부각되어 지기까지는 作家로서 現實에 대한 照應의 姿勢가 무엇보다 重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피라미트를 上空에서 鳥瞰할 때, 그것은 口形으로 보이지만 側面에서 볼 때 그것은 다시 △形으로 보이듯이 作家가 現實을 照應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19세기 西歐에 있어서 리얼리즘의 出發이 그랬듯이 人間存在의 결정적 威力은 社會環境의 作用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리얼리즘 文學이 갖는 특성은 일단 現實의 事象을 끈질기게 추구하려는 강렬한 욕구에서 출발된다. 적어도 當代現實에서 빚어지는 유형무형의 제반 사상을 보다 박진하게 추구하려는 의식의 작용이 加重되면서 아이디얼리즘의 主觀的 主情的 表現方法이 결코 대상의 正確한 表出方式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리얼리즘 文學은 대상에 대한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의식이 作用한 것임은 再言의 餘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科

1) 金炳傑 : 20年代 리얼리즘 文學 批判<創作과 批評> 32卷, p. 333.

學的이고 客觀的인 명제에서 正確한 模寫論을 要請했던 創造派의 이른바 <人生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表現하러>고 한 태도가 도리어 한국 문학사에 여러가지 혼돈이 제기되었던 것은 재미있는 현상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創造派 作家들의 作品이 口號와는 달리 現實 照應의 자세에 있어 이미 리얼리즘의 중요한 태두리를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廉想涉은 周知하는 바와같이 이땅의 리얼리즘 가운데 가장 典型的이고 그런대로 理想的인 作品을 창조해낸 作家로서 손꼽고 있다. 특히 <三代・1931>의 現實照應에 대한 姿勢가 완벽했던 만큼 리얼리즘 文學으로서의 價値는 그 어떤 作品보다 完結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作品이 씌어지기까지 이미 술한 作品에서 現實의 문제로부터 人物의 性格構造나 主題에 이르기까지 作家로서의 괴로운 試驗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저녀작 <標本室의 靑개구리・1921>를 발표하고 난 뒤 이듬해 <個性과 藝術>을 통해 示唆한 바가 있는 리얼리즘에 대한 自覺은 어쨌든 重要的 論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春園이나 東仁에 이르기까지의 作家意識은 大衆을 教化하는 手段으로서 스스로 先驅者의 입장을 자처했던 點²⁾에서 나타난다. 現實의 진면목을 노골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맹엄한 散文精神을 喪失하고 만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산문정신은 當代의 大衆이 안고 있었던 가장 절실했던 문제를 作家로서 어떻게 포착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反映하는가에 따라 리얼리즘 문학의 성패가 놓이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경우 이러한 當代의 現實문제를 누구보다 관심있게 추적했다는 것은 例의 <個性과 藝術>에서 제일에 우선 모든 권위를 물리치고 나서 현실 세계를 현실 그대로 보려고³⁾ 했다는 態度에서 엿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東仁이 <創造>의 創刊에서 밝혔듯이 春園의 非現實의 文學論을 통박했지만 결국 自身도 그러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것은 그의 作品들이 現實파악에 있어서 一種의 嗜好的 태도로써 일관했으며 따라서 作家意識의 허약성을 노출시킨 점은 春園의 軌를 벗어나지 못하고 만 것이다. 염상섭 역시 <個性과 藝術>에 비친 훌륭한 理論과는 달리 그의 初期作品에 나타나는 現實의 문제는 어슬뜨게 作用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장에서 充分히 구명되었지만 20年代의 現實은 최잔일로에 있는 民族의 運命⁴⁾과 더불어 民衆의 삶에 대한 打開策을 떠나 있을

2) 申東旭：韓國 現代 文學論(博英社) p. 79 參照.

3) 廉想涉：個性과 藝術<白識：批評의 理解> p. 157.

4) 金宇鍾：作家論(同化文化社) p. 65. 參照.

수 없다. 말하자면 植民地 時代로서 植民地 백성이 지니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을 어떻게 作品上에 投影시킬 것인가 하는 지극히 重要的 문제를 外面한 채 그의 作品은 展開되었다.

이것은 現實을 단순히 平凡한 日常事에서 <있는 그대로>의 문제에만 置重한 소극적인 見解의 결과로 看做할 수 밖에 없다. 보다 次元 높은 리얼리즘의 精髓는 차라리 艱박한 人間敗北의 現場을 아낌없이 露呈하고 옹호하려는 作家意識이 低邊에 얼마만큼 作用하고 있느냐에 따라 現實과 악의 姿勢는 성립된다. 뿐만 아니라 現場性에 대한 正確한 포착을 위해서 作家의 現實에 대한 準열한 抵抗精神에서 理想的인 現實照應의 姿勢가 構築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처녀작 <標本室의 청개구리>에서 이미 廉想涉은 春園이나 東仁의 文學觀을 去勢하고 獨自의인 文學論을 構築하려는 意識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은 결코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標本室의 청개구리>가 종래에 볼 수 없었던 몇가지 경이 가령 무미진조한 개구리의 解剖장면 같은 科學的인 제재라든가 文體에 대한 또 다른 意識은 東仁이 지적한 것처럼 當時의 文壇에서는 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¹⁾

그러나 이 作品을 냉엄한 입장에서 관찰할 때 종래의 文學的 事象과 또 한 거리가 있을 수 없다. 얼핏 보기에는 자연주의적 여러가지 특징(리얼리즘)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 낭만주의적인 요소²⁾ (아이디어리즘)가 그대로 잔재해 있다. 가령 리얼리즘 文學으로서 일반적 보편적 要件으로 제기되는 平凡하고 典型的(Typical Modes)인 人物構造가 日常的인 事件 가운데 現實大衆의 切實한 爭點이 거기 부각되어 있지 못하고 一部 階層의 皮상적이고 幻想的인 문제가 더욱 강렬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리얼리즘 文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틀테면 이 作品의 主人公으로 등장하는 狂人 金昌憶의 人間的인 모든 형상이 一般的 보편적 人物의 構造 위에 設定된 것이 아니라 狂人이라는 非正常人의 特殊한 人物構造에서 出發하고 있다는 點이다.

廉想涉 자신이 個性에 대한 自覺을 누구보다 먼저 부르짖고 있었지만,

1) 金東仁: 韓國 近代 小說考<春園研究, 新丘文化社> p. 190.

2) 千二斗: 韓國 現代 小說論<형설출판사> p. 46.

그 자각은 이러한 非現實의 人物을 통해 設定되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이 作品은 當時의 나약한 셉티멘탈리스트나 로맨티스트들이 즐겨 다룬 <술>이나 <사랑>, 또는 <죽음>과 같은 퇴폐적인 제제가 골자를 이룬 것은 납득할만한 일이 못된다. 平凡하고 日常的 社會現實에 接近될수록 이러한 平凡하고 日常的 제제가 作中現實로 등장할 것은 당연하다. 金東仁의 作品에서 보면 극한적이고 드라마틱한 제제가 작중현실로 자주 나타나는 것은 現實에 대한 照應의 자세가 벌써 當代 現實과 密着되었던 것이 아니라 現實로부터 동떨어진 거리에서 照應했던 結果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標本室의 청개구리>가 그 어떤 現實파악의 자세로서 리얼리즘의 경지를 터득했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作家로서의 當代 現實에 대한 나약한 부정비판의 정신이 겨우 리얼리즘의 문맥에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前項에서 약간 언급한 바와같이 1920年代의 民族現實이란 가혹할 만큼 不安한 것이었다. 이 不安한 情勢에서 知識人으로서 打開할 비결이 없을 때 어두운 絶望의 탄식 이상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狂人 金昌憶은 이러한 絶望의 탄식으로 現實을 읊은 것이다.

또한 그의 文體意識을 보더라도 이 作品이 餘他の 作品에서 드러난 <호흡의 완만, 슬로우 템포, 만연하는 長文, 正攻法的, 平面的 묘사 표현, 서울말을 기반으로 한 순수한 우리 어휘의 활용 등>³⁾이 보이지 않고 흥분과 괴기와 영탄적이고 감상적 토운이 짙게 깔려 있을 뿐이다.

나는 그럴엽서에서 본 울창한 산림, 야자수 밑에 앉은 나체의 만인을 생각하고 통쾌한 듯이 어깨를 으쓱하여 보았다. 단 일본의 정거도 아니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있는 굳센 숨을 헐떡헐떡 쉬는 볼스퍼드의 기차로 영원히 달리고 싶다. 만일 타면 현기가 나리라는 염려만 없었으면 비행기! 비행기! 하며 혼자 좋아하였을지도 몰랐었다.

<標本室의 청개구리>

이러한 幻想 및 怪奇 一邊倒의 세계가 作家로서 지니는 權威와 偶像을 그대르 간직한 채 나타나 있었고, 엄격한 理性보다 허황한 감상이 더 많이 支配하고 있다. 비록 作品 虛頭에서 비친 科學性을 內包한 개구리의 解剖, 날카로운 매스, 바늘끝 등 드라이한 素描가 있었다 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社會科學의인 문맥이기보다 一種의 金昌憶 個人的 不安意

3) 鄭漢模: 염상섭의 文體와 어휘구성의 특성 <女學思想 통권 6> p. 272.

識으로 나타나는 思考감정을 極端化하기 위한 手段에서 취해진 제재가 된다. 社會科學의인 文脈에서 파악할 수 있는 作品이라면 차라리 金東仁의 <감자>를 보면 이 문제는 克明해진다. 그러므로 現實社會에서 빚어지는 여러 斷面이 함축되어 나타날 때 거기서 읽을 수 있는 참다운 의미가 리얼리즘의 진정한 바탕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標本室의 청개구리>는 이러한 當代 現實의 社會的 爭點을 社會科學의인 입장에서 모색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리즘에 立脚한 主觀的 文學觀을 답습한데 불과하다.

그중에도 나의 머리에 교착하여 불을 끄고 누웠을 때나 조용히 앉았을 때 마다 가혹히 나의 신경을 연습하여 오는 것은 해부된 개구리가 사지에 靑靑을 박고 칠성판 위에 자빠진 형상이다.

<標本室의 청개구리>

이 작품이 이러한 科學文明의 대두에서 밀려난 人間敗北의 준열한 의식이 작품주제로 일관되었다라면 문제는 달랐을 것이다. 허지만 그렇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 문제는 나래이터로 등장한 <나>의 신경쇄약증을 암시한데 불과했고 科學文明 그 자체를 비판한 정신은 아니었다. 主人公이 되어 있는 金昌愷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金昌愷은 現實과 대립하는 정신 위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幻想의인 理想세계를 追求하는 人物像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廉想涉이 이 작품에서 내다본 現實照應의 姿勢는 리얼리즘에 立脚한 現實과 接近된 거리에서 벗어나고 現實의 근본을 意識했다 치더라도 現實에서 유리된 位置에서 當代 現實을 照應했다.

예술가에게는 外部的 리얼리티의 작용에 대한 그의 의식의 반작용을 시대의 보편적인 이념과 일치되도록 운용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作品이 지나는 궁극의 美學은 表現의 技巧, 심미적 描寫에 있지 않고 작품의 심층에 놓인 모랄의 감동에 內在한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찌하여 그들이 疎外地帶로 밀려나게 되었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직설적이든 상징적이든 지면에 내포하고 있지 않는 作品은 모랄의 망각이요 휴머니즘의 저부가 된다. 객체 그대로의 表現은 生命이 없는 기계적 模寫論이며 固着的인 리얼리즘인 것이다.⁴⁾

4) 金炳傑：前掲書 p.326.

적어도 民衆에 依한 公的 관심이 무엇인가를 깨고 그것과 대결해 나가는 現場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因襲을 거부하는 냉철한 부정비판의 作家 정신에서 作品이 형상화 되어지지 못할 때, 그것은 固着性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現實照應의 자세마저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3〉

〈標本室의 청개구리〉가 叙上한 바와 같이 倒錯된 리얼리즘으로 要約될 때, 廉想涉 자신은 이것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나섰던 것이 事實이다. 가령 그의 계속해서 發表된 第二 第三의 作品을 보면 이러한 면이 단적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23년에 發表된 〈新婚期〉, 〈金半指〉, 〈밥〉, 〈조그만 일〉, 〈電話〉 등 일련의 短篇과 〈萬歲前〉 같은 中篇은 그가 〈標本室의 청개구리〉에서 具備하지 못했던 現實에 대한 照應의 자세를 새로운 角度에서 모색하고 있었던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리얼리즘이 日常的 現實 〈可視的 世界〉를 再現한다는 平凡한 常識으로써 充實했다는 點이다. 말하자면 저 R. Williams의 〈平凡하고 日常的인 當代的 現實〉¹⁾을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찾아 나섰던 것이다. 적어도 이것은 이땅에서 리얼리즘이 生成되기까지 일단은 이러한 平凡性과 日常性을 통한 現實認識이 廉想涉 자신의 주장대로 리얼리즘에 입각한 산문정신을 종전의 이상과 권위에 대한 타파라는 슬로건을 통해 실천하려는 意識의 結果였다.

金東仁은 廉想涉의 이러한 변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

處女作 〈標本室의 청개구리〉로서 그만큼 침착하고 그만큼 多恨한 作風과 思想을 보여준 그가 第二作 第三作을 發表함에 따라 그 침착, 그 多悶多恨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다만 그의 作品에서 그냥 남은 것은 〈疼痛과 같은 무게〉다.²⁾

〈疼痛과 같은 무게〉 그것은 〈標本室의 청개구리〉에서 엿보이던 感性의 作用이 아니라 理性에 의한 토운을 의미한다. 이성을 中心으로 作家 정신이 形成되었을 때, 그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리얼리즘 정신과 결부된

1) R. Williams : 리얼리즘과 現代小說〈창작과 비평〉 7권 參照.

2) 金東仁 : 前揭書 p. 191.

다. 廉想涉은 여기서 냉정한 이성을 토대로 하여 現實을 照應하는 자세를 구축하였다.

피로연이 칠관분이나 어우러져 들어가서 들쭉번으로 일본 사람 된의 측사가 끝이 나라할 제, 누구인지 <후록코트>짜리가 밖았으로서 들어오니 신랑의 귀에다 입을 대고 소근소근 하는 사람이 있었다.

<新婚記>

그가 오후 열시가 넘은 뒤에 2병원 환자실로 통한 동편복도를 지나 동오호실로 들쳐서니까 뒤에서 누가— 누가라노니보다도 간호부 견습생 E가 「O씨!」 하고 겨우 들릴까 말까한 떠는 목소리로 불러놓고, 팔닥팔닥 가벼운 웨집신 소리를 내이며 좇아온다.

<金半指>

<新婚記>와 <金半指>의 虛頭部分이다. 이 짝막한 引用句에서도 우리는 <標本室의 청개구리>에서 느낄 수 있었던 文脈과는 서로 다른 樣相을 발견하게 된다. 말하자면 平凡한 日常의 生活과 結付된 事件이 作品을 構成하고 있으며 거기따라 怪奇 또는 劇의 提示가 보이지 않고 있다.

등장인물 역시 金昌憶과 같은 狂人の 모습이 아니라 <영희> : (新婚記), <E> <O> : (金半指)³⁾ 같은 平凡한 人物이 日常的인 現實에서 平凡하게 엮어가는 生活의 斷面을 그리고 있을 뿐이다. 金昌憶 같은 非正常人의 人物에서 <영희>나 <E> <O> 같은 平凡한 正常人의 人物로 轉移될 때, 이것은 現實照應의 姿勢가 現實 쪽에 密着된 것과 다름없다.

文體面에 대한 意識도 廉想涉에 대한 文章이 用言體⁴⁾으로 드러나 있고 완만하고 든중한 토운에서 만연체 文章으로 차여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引用되었던 두 作品에서 보더라도 피어리드 하나 없이 이토록 길게 하나의 文章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標本室의 청개구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예는 물론 平凡한 日常事를 表出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結果였다고 하겠지만, 描寫의 원칙이 강력히 要求되는 것이 리얼리즘 文學이라 할 때, 廉想涉은 우선 이런 면에서 누구보다 앞서 意識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作品이 리얼리즘 文學으로서 이상적이거나 완벽한 사명

3) 廉想涉 : 短篇集<新婚期> 작중인물의 表記를 <E>나 <O>로 한것은 平凡한 人物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4) 李仁模 : 文體論<東華出版社> p. 269.

을 다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아직도 現實을 照應하는 자세에 있어 미흡한 점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말하자면 當代現實에서 가장 절실했던 公의인 爭點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점과 그 現場의 문제를 正確하게 포착, 부정 또는 비판 정신이 냉엄하게 제기되지 못한 것은 이때 썩어진 一連의 作品들이 그야말로 平凡한 日常事를 일체의 假飾없이 客觀의 안목으로 솔직하게 照應해준데서 그 功過를 부여할 뿐이지 참다운 리얼리즘의 課題를 아직도 많이 남겨둔 채 廉想涉 문학이 展開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이 시기에 발표된 <萬歲前・1923>을 놓고 볼 때, 결코 그러한 杞憂만을 할 수 없다. 이 作品은 <標本室의 청개개구리>처럼 망각된 現實이나 <電話> <金半指>에서 처럼 日常의 現實 그것만으로 局限하는 것이 아니라 作中話者인 <仁煥>의 苦惱가 金昌憶의 수준에서 처럼 오해될 염려없이 深化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일상적인 개인생활에 부착된 의식의 눈을 사회적 문제로 발전시키면서, 일상적인 생활의 의미나 비중이 사회적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뚜렷하게 형상화하고 있다.⁵⁾ 그러므로 사회적 문제로 자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은 當代의 公의 現場에 接近했음을 示唆한다. 사실 東京유학생 <仁煥>이 갖는 의식면의 作用은 꾸밈없는 솔직성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데 있단말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들고 있다가 욕탕에서 싹뿔게 달은 뿔뿔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中略>

『실상은 누워 떡먹기지. 나두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번째나 되우만은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불러오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우리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에 빠져서 속아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관대기를 치어다 보지 않을 수 없었다.

<萬歲前>

5) 申東旭：前掲書，p. 88.

그 자신이 안고있는 當代의 朴實 現實을 東京留學生活에서는 퇴폐적 頹廢적 狀況으로 노출시키지만, 歸國船上에서 日本人이 韓人들을 金甞처럼 생각하는 非人道적 처사에 이르렀을 때, 괴로운 저항을 느끼고 몸부림 친다.

이것은 A, 하우저의 自然主義 개념⁶⁾속에 드러난 사실묘사의 정직성, 또는 개조자의 자세로서 <仁煥>의 行動半徑은 매우 意義있는 것이 된다 人間으로서 人間的 삶을 누리려 했을 때, 빚어진 여러가지 갈등 문제는 이 作品을 통해 리얼리즘의 한 典型을 産出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르렀다

<4>

1920年代에서 <萬歲前>의 수확은 확실히 特記할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후의 廉想涉은 되풀이해 平凡한 口常事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가령 <論轉機> <孤獨> <遺書> <두出發> <南忠緒> 등은 제목의 의미하는 바와 같이 <萬歲前>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1930年代에 들어서자 우리는 저 <三代>와 같은 작품을 접하게 된다. <三代>는 오늘날 廉想涉 자신의 代表的 장편소설로서 여기 內 包된 여러가지 問題點을 分析 舉論하여 특히 이 作家의 現實 照應의 자세를 中點적으로 살펴 볼 차레다. <예술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탁월한 세계관이 아니라 자기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작업>¹⁾으로서 이 문제는 重要性을 띤다. 리얼리즘 문학이 어떤 特定階級이나 少數의 人間的 삶을 위해 이바지 될 때, 그것은 일말의 價値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眞正적이며 非관적 의미마저 찾을 수 없게 된다.

<標本室의 청개구리>에서 출발하여 20년대에 발표한 여러 作品은 그 것이 리얼리즘 문학으로서 功과 尤무를 떠나 現實照應의 자세를 여러 모로 試圖했고, 나아가서 <三代>에 이르면 固定된 平面的 자세를 탈피 多角 的이고 立體的 照應의 자세를 마련한다.

<三代>는 다 알다시피 1931年 朝鮮日報에 연재한 作品으로서 이 作品이 발표될 당시의 社會 및 時代現實은 20年代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 미묘한 것이었다.²⁾ 그러므로 30年代가 지니고 있었던 現實的 事象을 다음과

6) A. 하우저 : 自然主義의 概念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 p. 65.
 1) 金允植 : 眞현 : 韓國文學史 <文學과 知性> 11卷, p. 240.
 2) 白 鐵 : 新文學思潮史 <全集4> p. 417 참조.

같이 몇 개의 爭點으로 나누어 보게 된다.

- ① 外來的인 것과 在來的인 要素의 마찰.
- ② 封建地主와 小作農民間的 알력.
- ③ 知識人과 對現實關係
- ④ 日帝殖民地 정치에 대한 被支配 계급의 反植民政治에 대한 감정³⁾

이러한 現場에 대한 문제가 총칭으로 대립되어 나타나는 것이 <三代>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①의 경우로서 그 좋은 예가 基督教의 대두에서 大衆과의 대립관계를 들 수 있겠고, ②는 조의관으로 대신하는 봉건주의로서 여기서는 直接的인 피해민으로 등장하는 小作農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돈의 힘으로 양반도 사고 벼슬도 사는 대지주라면 여기 대립되는 '소작농이 있었을 것은 뻔한 이치다. ③은 아버지 <상훈>과 아들 <덕기>, 그리고 그의 친구인 <병화> 등으로 대신하는 知識人, 그러나 이들 지식인이 자기 다른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그 現實의 문제마저 여러 모로 달리 나타나 있다. ④ 當代 現實을 가장 무섭게 支配하는 殖民地 정치에 대한 反日감정은 소극적 타협주의로 나서는 <조덕기>와 적극적 배타주의로 나서는 <김병화>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多角的 爭點을 부각하면서 殖民地 治下라는 宿命的인 한 時代를 살아가는 韓末세대 <조의관>, 開化期세대 <조상훈>, 殖民地 세대 <조덕기>의 三代가 펼치는 現場을 作家의 열성어린 투지로 描破된다.

韓末세대의 배금주의나 開化期세대의 쾌락주의로 要約되는 이들 舊世代의 沒價値한 人物構造와 보다 찬다운 生活의 자세를 追求하는 殖民地세대의 <덕기>나 <병화>는 이 作家가 그래도 新世代에 바라는 애정어린 作家意識의 發露였음이 드러난다.

덕기는 펍 대답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마음 먹은 대로 한 마디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이런 소리를 필순이가 혹시 의심하거나 오해하지는 않을까 염려도 되었다.

필순이는 확실히 반기는 낯빛이었다. 얼굴이 빨개지며 입속으로 무어라고 대답을 하는 모양이나, 덕기에게는 잘 들리지 않았다. 아마 고맙다는 말일 것이다.

「야아, 어려운 출입했네 그려..」

3) 拙稿 <30年代의 韓國 리얼리즘 文學研究> p.6 參照.

병화는 문전에 자전거를 새우고 소리를 치며 들어온다. 오늘은 양복 의
투에 의관이 분명하다.

<三代>

<필순>과 <덕기>, <덕기>와 <병화> 그리고 <병화>와 <필순>
으로 이어지는 식민지 세대의 극단적 상황이 작가의 애정어린 입김 속에
서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진다. 점진적 진보사상, 혹은 온건한 자유주의로
표현할 수 있는⁴⁾ <덕기>와 유치하면서도 순진하고 열렬한 사회주의자인
<병화>,⁵⁾ 그리고 가난하고 선량한 꿈녀 <필순>은 어떤 의미에선 영원
히 화합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만을 빚어낼 여건 속에 놓여 있지만 그들
은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돕는데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조상훈>이나 <수원택>으로 대신하는 개화기 세대는 표리부
동한 이기주의적 사고방식만을 일삼는 가장 저질적인 人物로 부각된다.
가령 아버지 <상훈>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신자<장로>로, 교육자로
행세하는 新時代의 心像을 지닌 人物로 되어 있지만, 內面生活에 있어서는
위선과 비인도적인 향락에 탐닉된 인테리⁶⁾로 등장한다든지 70세가 된
노인 <조의관>의 쫓으로 들어가 오로지 財産만을 노리는 <수원택>은
자기위주의 動物的 그릇된 사고와 행위만을 속출시켜 이 세대의 몰락한
자취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개화기세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
게되는 세대가 곧 식민지 세대라는 점이다. <홍경희>나 <조덕기>
<김병화>는 <조상훈>으로부터 <수원집>으로부터 <병화의 아버지>
로부터 윤리적, 재정적, 사상적으로 각기 빠져린 시련과 고초를 겪게 되
는 모습이 직접간접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한말
세대를 대신하는 <조의관>이 손자 <덕기>에게 向하는 신임과 애정을
보인것은 자신의 양심을 손자에게 말진 결과라기 보다 아들 <상훈>의
불신임이 간접적으로 손자 <덕기>쪽으로 전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심리
적 要因이 있는 까닭이다.

영감은 얼굴이 발끈 취해 올라오며 뒷목에 숙이고 섰는 아들을 쏘아본다
「어서 가거라! 여기는 너 율제가 아니야! 이 자식아! 나이 오십 줄
에 든 놈이 젊은것들을 앞에 놓고 철딱서니 없이 무어 어쩌고 어찌? 조상
을 꾸어 왔어? 꾸어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만 도와? 배지 못한 자식!」

4) 金炳翼: 갈등의 社會學<現代 韓國 文學의 理論> p.317.

5) Ibid, p.316.

6) 申東旭: 前掲書, p.93.

영감은 금새로 숨이 넘어가려는 사람처럼 험뎌거리며 벌건 목에 푸른 힘줄이 벌렁거린다. 상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한구석에 섰다.

「너두 내가 낳아 놓은 자식이면야 사람이겠구나? 부모의 혈육을 타고났으면 조상은 알겠구나? 가사 젊은 애들이 주책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꾸짖고 가르쳐야 할 것이 되려 철부지만도 못한 소리를 텅텅하니 이게 집안이 띄려고 이러는 거란 말이나? 안되려고 이러는 거란 말이나?」

<三代>

이처럼 植民地治下에서의 人物에 대한 內的 갈등을 살펴본 것은 社會的인 文脈에서 公的 爭點을 보다 幅 넓게 추구했던 결과며 現實照應의 자세에 있어 一定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接近해간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때의 거리란 자기 서로 다른 세대를 同時에 鳥瞰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입장도 작가적 관심을 떠나 있었으나 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한말세대의 복고주의에 대해서는 관대했고 개화기 세대에서는 역점을 주어 비판했다. 그리고 식민지 세대에 대해서 애정을 기우렸다는 점은 리얼리즘으로서의 작가정신 곧 부정내지 비판정신을 말한 셈이다. 이러한 작가의 현실에 대한 관심은 훌륭하게 작용한다. 사회주의자 <병화>는 조씨집의 祖父孫 三代와는 뚜렷하게 대립되는 입장에서 용기있게 社會正義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知識 청년으로 形象化되고 있다.

결국 이 作品은 한말세대로부터 三代에 걸친 한 가정을 중심으로 빚어진 파란많은 식민지 처하의 現實을 正確히 照應해 보였다는 점이다. 리얼리스트로서 지닐 수 있는 現實照應에 대한 자세는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작가로서 現實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겠지만 그 관심 이상으로 現實에 대한 정확한 照應의 作用이 작품의 成敗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5>

지금까지 作家 廉相涉의 리얼리즘 文學의 展開過程을 살펴 보았다. <標本室의 청개구리>에서 出發하여 <三代>에 이르도록 現實照應에 대한 作家意識의 反應은 여러가지 面目을 보여주면서 나타났다. <標本室의 청개구리>가 오해된 리얼리즘을 형성했고 <萬歲前>이 놀라운만큼 抵抗의 자세로 當代 現實을 照應했다. 그러나 완벽할 수 없는 여러가지 약점 가령 <仁煥> 個人의 主觀의 思考감정이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어 多分히

理性에 의한 客觀의식보다 感情에 의한 主觀의 偏向이 앞서 의식된다. 이러한 몇가지 약점을 보완하고 生成된 것이 <三代>다.

<三代>가 지니는 여러가지 의미는 단순한 日常的 現實을 反映하는 그런 소극적 模寫論에 머문 것이 아니라 當代의 民族現實을 巨視의 眼目으로 照應한 作家의 力量에서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祖父孫 三代의 서로 다른 人物의 意識構造를 진솔하게 엿보인 점이나 어둡고 괴로운 狀況下에서나마 결코 절망만으로 現實을 본 것이 아니라 <덕기> <병화>를 통해 애정어린 긍정적 입김은 실로 놀라울만한 것이다. 이 作品의 末尾에서 <덕기>가 외치는 소리는 곧 주제의식과 직결된다. <—그러나 돈이란 뭐냐?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구차한 사람, 고생하는 사람은 그 구차, 그 고생만으로도 인생의 큰 노역이니까 그 노역에 대한 당연한 보수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돈없는 덕기>로서 <도의적 이념>으로써 필순이 모녀를 팔겠다는 의지는 훌륭한 作家精神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 땅의 小說文學이 形成된 系譜를 <李人植—李光洙—金東仁> 같은 分水嶺을 그어 생각해 본다면 廉想涉은 리얼리즘軸을 향해 끊임없이 발전 변모해 온 과정이 역력하다. 가령 <李人植—李光洙—金東仁> 文學을 한 묶음 하여 아이디얼리즘으로 규정할 수 있고, 金東仁은 春園이나 菊初에 비해 훨씬 多樣한 변모가 보인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形成된 廉想涉文學은 初期의 미흡했던 약점을 보완하면서 30年代의 <三代>에 이르러 리얼리즘으로서 완벽한 산문정신을 構築해 놓았다.

도리켜 보면 같은 20年代나 30年代에서도 玄鑰鍵이나 金裕貞과 같은 훌륭한 리얼리스트가 있었지만, 그들이 志向했던 文學性은 또 다른 色調를 나타낸다. 이들 문학의 천착은 稿를 달리하여 규명해 보려하나, 아뭏든 廉想涉의 文學이 <三代>에 이르도록 現實을 照應한 作家意識의 괴로웠던 變移를 엿볼 수 있었고, 단순한 日常的 現實에 대한 反映내지 模寫論이 결코 리얼리즘의 典型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三代>以後 1963年 그가 殞命하던 해까지 發表했던 수많은 長短篇을 통해서도 새로운 照明이 필요할 줄 안다. 이러한 몇가지 宿題를 남겨둔 채 未洽한 稿를 맺는다.